

해풍지

海風誌

바닷바람을
타고 온 소식지

Maritime Heritage News

2026년 봄호





한국수중발굴 50주년 바다 아래 숨겨진 역사를 깨우다

1976년 시작된 한국수중발굴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50년은 바다 속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를 하나씩 되살려온 시간이자,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수중유산의 가치를 확장하며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한국수중발굴 50주년의 의미

1976년 신안 앞바다,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도자기 한 점. 우연한 발견을 계기로 한국 최초의 수중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수중유산 조사 전문인력과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시절이었다. 해군의 힘을 빌려 시작된 9년간의 수중발굴조사에서 중세 무역선 한 척과 2만 7천여 점의 도자기가 쏟아졌다. 세상에서는 이를 두고 ‘신안 보물선’의 발견이라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수중고고학의 역사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였다. 국내 유일의 수중발굴기관인 국립해양유물연구소는 50년을 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앞으로의 5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

한국수중발굴 50주년 슬로건은 ‘역사의 물살, 미래의 물결’로 결정되었다. 국립해양유물연구소는 지난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수중발굴 50주년 기념 슬로건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슬로건은 한국수중발굴 50주년의 성과와 가치를 국민 공감과 미래 비전으로 이끌 수 있고 상징성과 확장성을 담았는지에 중점을 두어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수중유산 지킴이 캐릭터 이름 공모

한편, 한국수중발굴 50주년 캐릭터 이름 공모도 시행하였다. 캐릭터는 국립해양유물연구소 수중유산 탐사선인 씨뮤즈호에 놀러 온 수달을 모티브로 하여 2025년에 개발되었다.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대국민 참여로 진행된 공모전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직원 투표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이름은 ‘달리(Darli)’로, 바닷속을 누비는 수중유산 조사의 달인이자 열정 수호자이며 선조들의 숨결을 찾아 늘 힘차게 달리는 수중유산 지킴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캐릭터 달리



주요 기념 사업



1~12월

자단목 기록화 사업

3~4월

어린이 해양유산 그리기 공모전

7~8월

제1기 수중고고학 캠프(전문 인재 양성)

9월

목포해양유물전시관 특별전·야간개방행사
국제학술대회

제2기 고려난파선 수중발굴 캠프(국민 참여)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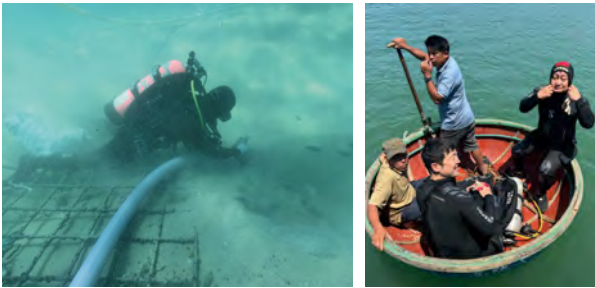
『한국수중고고학 개론』 발간

11월

태안해양유물전시관 특별전



첫 해외 조사, 베트남 수중발굴 공동 조사 실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과 함께 지난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베트남 팜응아이성 빈쩌우만 찌우투언해역(Chau Thuận Beach)에서 수중유산 공동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공동 조사는 2025년에 체결한 한·베 해양문화유산 공동연구 업무협약의 후속 실행사업이다. 빈쩌우만은 과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인도 및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무역로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해역에서는 8~9세기의 차우탄선*과 13~14세기의 빈쩌우선* 등 고대 무역선 유적과 함께 중국 당·명·청조 시기의 도자기와 닻 등이 다수 발견된 바 있어, 수중유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조사단은 잠수 조사와 시굴을 진행하여 유물의 상태와 분포를 파악하고, 조사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차우탄선 : 2009년 빈쩌우 차우탄 해역에서 중국 당대 도자기와 함께 발견된 배

*빈쩌우선 : 2013년 빈쩌우 해역에서 중국 원대 도자기와 함께 발견된 배

MINI INTERVIEW



베트남에 K-수중발굴조사 노하우를 공유하다 베트남 수중발굴조사 현장 조사원 인터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조사원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외 공동 수중유산 조사를 위해 베트남을 찾았다.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이영현, 정현 조사원을 통해 베트남 수중발굴조사의 생생한 기록을 들어보았다.

Q. 한국과는 다른 환경이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궁금하다.

A. 한국에서는 조사선에서 공기를 공급하고, 통신장비를 활용해 바다 위 잠수통제실과 소통하며 작업하는 표면공기공급 방식으로 진행한다. 베트남에서는 공기통을 이용한 스쿠버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사전에 약속된 신호로 작업을 진행하고 수면 위에서 바닷속을 내내 들여다보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한국은 점성이 있는 개흙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반면, 베트남은 모래로 이루어져 제거는 쉬웠지만 쉽게 무너지는 특성이 있었다.

모래층으로 이루어진 제주도 신창리해역 수중발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장비를 준비한 점이 큰 도움이 되었다. 조사 현장의 날씨와 수온은 한국의 초여름 날씨였다. 한국에서는 체온유지를 위해 보통 건식잠수복을 착용하는데, 베트남에서는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 습식잠수복을 사용했다.

Q. 조사 현장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A. 이동 수단이 '바구니배'인 점이다. 항 대신 해변에서 출발하는 바구니배는 엔진 없이 노를 저어 이동하는 방식이라 현지 사공의 숙련된 기술이 필수였으며, 안정성과 복원력이 뛰어나 많은 장비나 인원을 함께 운반할 수 있었다. 반미와 쌀국수 등 식사도 바구니배를 통해 전달됐는데, 이는 조사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Q. 베트남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A. 현지 어민들이 바구니배를 타고 찾아와 조사 현장을 지켜보거나, 과거 유물을 발견한 위치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다만 수중유산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조사 현장을 선박이 지나가기도 했으며, 과거 바다에서 발견한 유물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Q. 첫 해외 조사를 마친 소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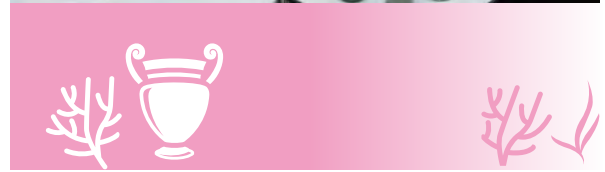
A.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베트남은 수중발굴조사 가치가 뛰어난 곳인데 아직 체계적인 보호·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가 베트남 수중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향후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SPOEX 2026에서 수중유산 홍보 부스 운영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POEX 2026)’에 참여하여 수중유산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400여 기관·기업·단체가 참여하고, 수중 레저스포츠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연구소는 수중유산의 가치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해양유산 전시’를 운영하고 다양한 수중유산 보호 홍보 콘텐츠를 선보였다.

전시는 보물 ‘청자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매병 및 죽찰’ 등 태안과 진도 해역에서 발굴한 수중유산(복제품)과 수중발굴 탐사선인 누리안호와 씨무즈호 모형 등을 선보였다. 특히, 수중유산 지킴이 캐릭터 ‘달리’를 활용한 포토존과 수중발굴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동형 수중발굴 체험 상자’가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9회 수중유산 조사기관 연구사례 발표회 개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수중유산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9회 수중유산 조사기관 연구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2월 26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시청각실에서 열렸으며, 연구소장을 비롯한 직원과 수중지표 조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행사에서는 2025년 수중유산 조사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연구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수중유산 조사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조사 기법과 성과를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수중유산 조사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중북부 지역 및 남부 지역 소수민족 전통 배 현지 조사 시행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박닌·후에·빈롱·껀터 등 베트남 중북부와 남부 지역의 소수민족 전통 배 현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각 지역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통나무배 24척을 실견하여 구조와 형태 등을 실측하였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작기술 및 민속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조사보고서를 향후 발간할 계획이다.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지난 1월 28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는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서 교육을 시행하였다. 강사로는 충북대학교 서정욱 교수를 초빙해 ‘과학으로 추적하는 고선박의 기원, 산소동위원소 연륜연대법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고선박의 제작 시기와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50주년 특별전 사전 행사, 신안선 출수 자단목 사전 공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한국수중발굴 50주년 기념 특별전에 앞서, 핵심 전시품인 1,000여 점의 '신안선 출수 자단목'을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공개하였다.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3일간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9월 14일 개막 예정인 특별전 「신안선 자단목이 들려주는 해상 교역(가제)」 (2026.9.14.(월)~2027.2.14.(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난 50년간 축적된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조사·보존·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3일간 한중일 연구자 포함 46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연구소 측의 자단목 설명 후에 진행된 실견에서 많은 질문과 궁금증을 쏟아내며 특별전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신안선 자단목을 비롯한 해양유산의 국제적 관심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전시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선통신사선 특별전 폐막

- 📅 폐막일자 : 2026.2.22.(일)
- 🔔 특별전 「있다, 건너다, 나아가다-조선통신사선 항해」는 누리집·출판물에서도 록으로 만나볼 수 있다.



도록 바로가기



태안전시관 기획전 전시 연장

- 📅 2025.9.12.(금)~2026.6.7.(일)
- 🔔 분청사기 등 마도4호선에서 출수된 유물 100여 점

목포

목포해양유물전시관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은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6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교육명	교육대상	내용	운영기간 / 신청 방법
바다탐험대! 체험관 미션을 완료하라	유아 (단체)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어린이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4월~5월 모집 마감
(온라인)해양유산 만들기	유아·초등학생	해양유산 만들기 체험 교구 수령 후 온라인 교육	5월~8월 예정/ 온라인 신청
찾아가는 청소년 마린스쿨	중학생 (단체)	메타버스(ZEP) 활용 진로 체험 교육	5월~10월/전화 신청
제35기 바다문화학교	청소년·시니어	청소년·시니어 대상 해양유산 주제 인문학 프로그램	8월~9월/전화 신청
바닷속 보물탐험	장애아동 (시각, 발달장애)	다중감각 체험물을 활용한 장애아동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9월~11월/전화 신청

태안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전시·교육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은 수요자 맞춤형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과 2월 24일, 법제처 법제교육 과정생을 대상으로 태안에서 만나는 수중유산을 주제로 서해 중부 해역 발굴 성과를 소개하고 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유물을 전시 해설과 함께 선보였다.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주변 해양 정화 활동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 직원들이 지난 3월 25일 태안 신진도 일원에서 해양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해빙기 시설물 안전 점검과 함께 전시관 주변 해안 환경을 정비하여 지역사회와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과 해양유산보존센터가 위치한 신진도는 낚시객과 캠핑객 등 방문이 많은 지역으로, 직원들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섬 연구기관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 1월 28일, 한국섬진흥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과 함께 ‘섬 연구기관협의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섬의 활로를 모색하고 해양유산·생태·정책·학술 분야의 섬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협약기관들은 공동조사, 연구 자료 공유, 학술·교육·홍보 협력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은 실무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첫 공동 행사로 4월 30일 ‘섬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흥군과 업무협약 체결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 2월 20일, 고흥군과 ‘섬 해양유산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섬 지역 해양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번 협약은 고흥군 섬 지역 해양유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조사·기록하고, 그 성과를 보존·관리 및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특량도와 시산도 일원을 시작으로 유형·무형·자연유산을 아우르는 종합 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성과를 전시·교육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지난 2월 24일, 재단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박람회와 전시관 관람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과 홍보를 약속하였다.

행사소식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26년 전 직원 비전 공유대회 실시**

지난 3월 30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전 직원 비전 공유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한국수중발굴 50주년을 맞아 연구소 구성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50년 후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모습과 이를 위해 1년 내 우리가 바뀌어야 할 일, 해야 할 일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사무동 증축 공사 완료**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사무동 증축 공사가 완료되었다. 연구소는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약 1년 7개월간 사무동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소 정문 출입구와 주차장 등 일부 시설의 이용이 제한되었다. 지난 3월 26일, 목포시의 사용승인이 확정됨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출입구와 주차장 이용이 정상화되었다.






2분기 예정 행사




「전시관에서 찾아보는 바다의 보물」 운영

-  2026.5.2.(토)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상설전시실 및 로비
-  어린이 대상 유물 탐구 활동지 제공
및 체험 활동 운영

2026년 하하호호 어린이날 통합 축제

-  2026.5.5.(화)
 -  국립해양유물연구소 야외광장
 -  어린이 대상 해양-자연유산 및 생활
도자 주제 체험부스 6종 운영
- * 자연사박물관, 생활도자박물관과 공동 주최

찾아가는 해양문화유산

-  2026.5.11.(월)~5.17.(일)
-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현장
-  태안해양유물전시관 홍보,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알림

주요 인사 동정

지난 1월 1일, 신임 해양유물연구과장으로 김지연 과장이 취임하였다. 아울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물과학팀이 해양유물연구과로 통합되었다.

국립해양유물연구소 정책 고객단 모집

국립해양유물연구소는 정책 고객단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책 고객단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연구소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연구소 주요 행사와 소식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현장 접수(전시관 내 신청서 비치) 혹은 이메일 접수(nara17@korea.kr)

※ 가입신청서는 국립해양유물연구소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국립해양유물연구소


누리집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목포해양유물전시관


누리집

🕒 09:00~18:00(월요일 휴관)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누리집


인스타그램

🕒 09:00~18:00(월요일 휴관)

목포해양유물전시관 어린이체험관

🕒 10:00~16:30



수중유산 신고,

바닷속 잠든 우리 역사를 깨우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신고
전화

국가유산청
080-290-8000

국립해양유산연구소
061-270-2060

전국경찰서
112

전국 관할 사군·구청
매장유산 담당부서

수중유산,
어떻게 신고하나요?

01 바다, 강, 호수에서
수중유산 발견

02 발견 후 30일 이내에
매장유산 발견신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

03 신고 된 수중유산의
소유권 관할 후
감정 및 국가귀속

04 수중유산
발견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05 수중유산 발굴의 원인을
채굴된 자에게는
규모 및 가치 평가 후
포상금 지급

